

제 119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 I 은 OCR답안지에, 주관식 II 는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団法人 漢字教育振興會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19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弭] ① 你 ② 穹 ③ 珥 ④ 縻
2. [玼] ① 毗 ② 鬢 ③ 圮 ④ 柿
3. [擺] ① 怕 ② 袞 ③ 貽 ④ 陌
4. [蠱] ① 顛 ② 酷 ③ 翱 ④ 圻
5. [站] ① 坵 ② 狄 ③ 籤 ④ 讖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縞] ① 滸 ② 葫 ③ 誥 ④ 瓠
7. [棟] ① 賽 ② 唳 ③ 穡 ④ 色
8. [栖] ① 篩 ② 麝 ③ 余 ④ 咽
9. [僂] ① 雛 ② 鰵 ③ 檣 ④ 錘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婆] ① 嬋 ② 媪 ③ 姆 ④ 媯
11. [鈿] ① 鈇 ② 鋤 ③ 鈇 ④ 鈞
12. [愴] ① 慵 ② 愨 ③ 愨 ④ 校
13. [懃] ① 忤 ② 佻 ③ 愨 ④ 慝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雙 ② 隻 ③ 集 ④ 讐
15. ① 堊 ② 堊 ③ 堊 ④ 堊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楯形 : 순형 ② 諛吉 : 추길
③ 鋤犁 : 조리 ④ 山墅 : 산서
17. ① 沸騰 : 비등 ② 明紬 : 명주
③ 惆悵 : 추창 ④ 啼哭 : 체곡
18. ① 扮裝 : 분장 ② 笮串 : 가관
③ 肩胛 : 견갑 ④ 葳備 : 천비
19. ① 飫聞 : 요문 ② 衍學 : 현학
③ 象嵌 : 상감 ④ 綴音 : 절음
20. ① 齒癰 : 치옹 ② 附缸 : 부항
③ 闡揚 : 선양 ④ 翠嵐 : 취람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모방과 [표절]은 다르다.
① 剽竊 ② 倭截 ③ 剽截 ④ 倭竊
22. 긴장 때문에 몸이 사르르 떨리고 [맥박]이 빨라졌다.
① 驀搏 ② 脈撲 ③ 脈搏 ④ 驀撲
23. 그녀의 남편은 낙천적이고 [호탕]한 남자였다.
① 昊宕 ② 豪湯 ③ 昊湯 ④ 豪宕
24. 그녀는 [전족]으로 자라지 못한 발로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걸어가고 있었다.
① 塹足 ② 纏足 ③ 剪足 ④ 銓足
25.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마침내 옥토로 만들었다.
① 隍蕪地 ② 荒茂地 ③ 荒蕪地 ④ 隍茂地
26. 누이는 본시 고민이나 [오뇌]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기질이였다.
① 澳惱 ② 誤惱 ③ 塊惱 ④ 懊惱
27. 시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축산 농가의 소·돼지·염소·사슴과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우제류]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한다.
① 隅提類 ② 偶蹄類 ③ 隅蹄類 ④ 偶提類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어머니는 다음 주에 심장 []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① 瓣膜 ② 籠絆 ③ 鑿錘 ④ 霑均
29. []은/는 사막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① 泮宮 ② 胴體 ③ 樗蒲 ④ 駱駝
30.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의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蹲踞 ② 償還 ③ 湮滅 ④ 儀軌
31. 경기가 되살아나니까 음식 장사가 가장 []하다.
① 殷賑 ② 崎嶇 ③ 瘦瘠 ④ 吹噓
32. 산속에서 밤이 깊어지자 나는 []의 무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① 襟度 ② 塵寰 ③ 覈得 ④ 豺狼
33. 우리에게 간혀 있는 호랑이의 우렁찬 []가 관람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① 謳歌 ② 蘚苔 ③ 咆哮 ④ 參詣

34. 사진 속 사찰은 한국 전쟁 때 이미 [] 되었다.

- ① 灰燼 ② 闕外 ③ 蠹簡 ④ 霰彈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일.

- ① 蠹臣 ② 非菹 ③ 短晷 ④ 買辦

36.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 ① 蕭索 ② 鑊烹 ③ 翎毛 ④ 烝溜

37.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장소.

- ① 鰭鬣 ② 鯉庭 ③ 稜線 ④ 禪榻

38. 학문이나 서화·음악 따위에서, 옛사람이 다 밝혀서 지금은 새로운 의의가 없는 것.

- ① 白縊 ② 憂慮 ③ 糟粕 ④ 鮫魚

39.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 ① 嬖寵 ② 穢土 ③ 奉邀 ④ 詛呪

40. 재주가 둔하고 말이 어좁음.

- ① 拙訥 ② 炬眼 ③ 粧潢 ④ 安謐

41. 매우 세차게 일어나거나 힘차게 솟아오름.

- ① 契勘 ② 御廩 ③ 戒飭 ④ 洶湧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弊袍破笠]

- ①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
② 일이 이루어지지 아닐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헛되이 하려 함.
③ 초라한 차림새.
④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서 바르게 가짐.

43. [博覽強記]

- ①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함.
② 여러 가지의 책을 널리 많이 읽고 기억을 잘함.
③ 사리 분별을 못 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④ 널리 알지만 정밀하지는 못함.

44. [鴻鵠之志]

- ① 훗날 웅비할 기회를 기다림.
② 죄인에게 칼을 씌워 가두던 일.
③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아주 멀.
④ 크고 높게 품은 뜻.

45. [彫心鏤骨]

- ① 시문 따위를 애를 써서 다듬음.
②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
③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④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①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天符印三個하여 遣往理之하다 雄이 ②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하니 謂之神市오 是謂桓雄天王也라 將風伯雨師雲師하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여 在世理化라 時有一熊一虎하여 同穴而居하니 常祈于神(㉠)하여 願化爲人이라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하고 不見日光百日하면 便得人形하리라하니 熊虎得而食之(㉡)三七日에 熊得女身이러니 虎不能(㉢)하여 而不得人身이라 熊女者無與爲(㉣)이라 故每於檀樹下하여 呪願有孕러니 (㉤)乃假化而(㉦)之하여 孕生하니 號曰檀君王儉이라 《三國遺事》

4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독음이 문맥상 ㉠의 독음과 다른 것은?

- ① 數罟 ② 數尿症
③ 頻數 ④ 數數往來

4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독음이 문맥상 ㉡의 독음과 다른 것은?

- ① 食率 ② 圓周率
③ 率土之濱 ④ 率直

48. 문맥상 ㉠와 ㉡에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 ① ㉠: 因, ㉡: 因 ② ㉠: 雄, ㉡: 因
③ ㉠: 因, ㉡: 雄 ④ ㉠: 雄, ㉡: 雄

49. 문맥상 ㉢와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 ① 忌 ② 禁 ③ 待 ④ 違

50. 문맥상 ㉤와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 ① 娶 ② 媾 ③ 婚 ④ 婦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憊 ()
- 주2. 鉗 ()
- 주3. 盱 ()
- 주4. 慊 ()
- 주5. 繽 ()
- 주6. 瞋 ()
- 주7. 岫 ()
- 주8. 撥 ()
- 주9. 權 ()
- 주10. 驤 ()
- 주11. 亟 ()
- 주12. 犀 ()
- 주13. 怏 ()
- 주14. 諶 ()
- 주15. 揔 ()
- 주16. 菅 ()
- 주17. 艘 ()
- 주18. 鉸 ()
- 주19. 圜 ()
- 주20. 逖 ()
- 주21. 靄 ()
- 주22. 鈹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罽 ()
- 주24. 繭 ()
- 주25. 冕 ()
- 주26. 豚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수척할 초 ()
- 주28. 패옥 수 ()
- 주29. 두필 나란할 변 ()
- 주30. 비틀 년 ()
- 주31. 어리석을 당 ()
- 주32. 꺾을 완 ()
- 주33. 조심할 기 ()

- 주34. 비구름일 엄 ()
- 주35. 새풀삭 잉 ()
- 주36. 땅이름 악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悄 筮 輜 瀝 豁 噸 黔 蔭
------	-----------------

- 주37. ○職 茂○ 功○田 ()
- 주38. ○竹 卜○ ○書 ()
- 주39. 餘○ ○血 披○ ()
- 주40. ○突 ○黎 ○首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匙楪 ()
- 주42. 翳日 ()
- 주43. 薄曇 ()
- 주44. 赭衣 ()
- 주45. 蓮藕 ()
- 주46. 麥藁 ()
- 주47. 颯辣 ()
- 주48. 羸陋 ()
- 주49. 含漱 ()
- 주50. 罄竭 ()
- 주51. 頓然 ()
- 주52. 詆辱 ()
- 주53. 齎用 ()
- 주54. 分蘖 ()
- 주55. 鐫銜 ()
- 주56. 肄習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57. 주변의 소음에 정신이 [혼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
- 주58. 사회가 [혼란]할수록 종말론자의 주장이 일반인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
- 주59. 조그마했지만 처마 아래의 단청은 고색이 [창연]했다. ()
- 주60. 정상에 오르니 사방이 확 트여 [창연]하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그들은 모든 것을 速念한 듯 反抗을 하지 않았다. (→)
- 주62. 이 作品은 韓國 文學史에서 量的으로 가장 芳大한 小說에 屬한다. (→)
- 주63. 좋은 남자와 結婚을 해 團爛한 家庭을 꾸미고 平坦한 生活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
- 주64. 粉帶란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으로 化粧 또는 화장한 아름다운 여자를 比喻한다. (→)
- 주65. 放送 通信 委員會는 猥洩性이 짙은 場面을 濾過 없이 내보낸 放送 프로그램에 대해 謝過 放送을 하도록 했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흠포]: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 버림. ()
- 주67. [괴란]: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움. ()
- 주68. [파행]: 별레나 짐승 따위가 기어다님. ()
- 주69. [영악무도]: 모질고 사납기가 이를 데 없음. ()
- 주70. [흠격]: 하늘과 땅의 신령이 감응함. ()
- 주71. [감실]: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 ()
- 주72. [예좌]: 부처가 앉는 자리. 또는 고승이 앉는 자리. ()
- 주73. [팽상]: 오래 삶과 일찍 죽음. ()
- 주74. [메별]: 섭섭히 헤어짐을 이르는 말. ()
- 주75. [별견]: 얼른 슬쩍 봄.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싱싱한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 현상이 발생한다. ()
- 주77. 어머니는 고된 주방일로 만성 [습진]에 걸리셨다. ()
- 주78. 그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나에게 [종용]했다. ()
- 주79. 두 사람이 오랫동안 [적조]했기 때문에 할 말도 그만큼 많았다. ()
- 주80. 이 비행기는 미사일 4기를 [탑재]하고 있다. ()
- 주81. 원인 치료와 체질 개선을 주로 하는 동양 의학에서는 [명현] 반응을 하나의 호전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주82. 문단 [거벽]이셨던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
- 주83. [취우]가 그친 하늘은 청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
- 주84. 승인서에는 당사자의 도장 대신 [무인]이 찍혀 있었다. ()
- 주85. [양말]을 빨아 짊질을 한 후 탁탁 털어 빨랫줄에 널었다. ()
- 주86. 오빠가 [의기소침]해 있는 동생의 속도 모르고 자꾸 귀찮게 말을 시켰다. ()
- 주87. 그녀의 [표독]한 눈에는 저주의 빛이 가득 찼다. ()
- 주88. 도대체 나의 이 끊임없는 [조울증]의 원인과 근인은 무엇인가? ()
- 주89. 침대의 [용수철]이 녹슬었는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다. ()
- 주90. [첩사]가 너무 길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暴○天物]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 버리거나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림. ()
- 주92. [平心○氣] 마음을 평온하고 순화롭게 함. ()
- 주93. [滿○秋水] 못에 가득 찬 가을의 맑은 물. ()
- 주94. [乘○之性] 타고난 천성. ()
- 주95. [繁文○禮]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 ()
- 주96. [殘杯冷○] 보잘것없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7. [十寒一○] 일이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끊김을 이르는 말. ()
- 주98. [傷寒動○] 찬 기운으로 인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고 열이 나는 증상. ()
- 주99. [阿諛○奪]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남의 지위를 빼앗음. ()
- 주100.[○苗助長] 성공을 서두르다 도리어 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그의 [山鷄野鶩]같은 성격은 여러 어린이에게 모범이 된다. ()
- 주102. 우리는 바쁜 일정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모처럼 [忙中偷閑]을 즐겼다. ()
- 주103. 그 회사의 경영진은 내실화보다는 무리한 사업 확장만을 고집한 끝에 부도가 나면서 [涸轍鮒魚]의 신세가 되었다. ()
- 주104. 병원 영안실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유가족들의 [呱呱之聲]이 들려왔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成語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은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비유한다. ()
- 주106. [여러 사람이 합해 말하면 굳은 쇠도 녹이듯], 거짓 뉴스도 지속적으로 유통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 주107. 한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작은 이익을 다투는 것은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과 같다. ()
- 주108. 어릴 때는 ‘귀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 [머리를 싸쥐고 쥐처럼 얼른 숨고] 싶어했었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寬弘磊落 ()
- 주110. 逢人輒說 ()
- 주111. 得隴望蜀 ()
- 주112. 多岐亡羊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蔬之將善 兩葉可辨 ()
- 주114. 十斫木 無不斫 ()
- 주115. 緩驅緩驅 牡牛之步 ()
- 주116. 盜之就拿 厥足自麻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與及雖以焉何於也豈諸之而猶

주117. 高句麗常○春三月三日 祭天○山川神 《三國史記》 (,)

주118. 德○流行 速○置郵而傳令 《孟子》 (,)

주119. 民欲與之偕亡 ○有臺池鳥獸 ○能獨樂哉 《孟子》 (,)

주120.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 可謂好學○已 《論語》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用飯飢速防製游貪生禦見奔費

주121. 生財有大道 ○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之者舒 則財恒足矣 《大學》 (,)

주122. 舟覆乃見善○ 馬○乃見良御 《淮南子》 (,)

주123. 欲○則不達 ○小利則大事不成 《論語》 (,)

주124. 衣服 不可華侈 ○寒而已 飲食 不可甘美 救○而已 居處 不可安泰 不病而已 《격몽요결》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賢錐處處之之中也若世士譬夫囊] 《史記》

국역: 무릇 어진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송곳이 자루 안에 있는 것과 같다.

()

주126.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好好臭此之自謂惡惡如如色謙] 《大學》

국역: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고 이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니 악취를 미워하는 것 같이 하며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일러 스스로 만족함이라 한다.

()

주127. [香菜定穩屋安心性茅羹] 《明心寶鑑》

국역: 마음이 편안하면 따로 지은 집이라도 편안하며,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이라도 향기롭다.

()

주128. 詩曰 [初終有有鮮不靡克] 《小學》

국역: 《詩經》에 말하기를 ‘처음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이 없으나 능히 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였다.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論語》

()

주130.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強天下 其事好還]

《老子》

()

주131. [多言數窮 不如守中]

《老子》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牽使入金> - 陳華

㉠西華已㉡蕭索 北塞尚昏夢
坐待文明旦 天東日欲紅

(나) <絕命詩> - 黃玟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다) <江村> - 杜甫

清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堂上燕 相親相近水中鷗
老妻畫紙爲碁局 稚子敲針作㉣
多病所須唯藥物 ㉤微軀此外更何求

주132. ㉠을 국역하시오.

()

주133. ㉡이 가리키는 대상인 2음절 漢字語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4. ㉢의 뜻을 쓰시오.

()

주135. ㉣을 국역하시오.

()

주136. (나)의 주제를 쓰시오.

()

주13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8. ㉥을 국역하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凡讀書者 必㉠단공위좌하여 敬對方冊하여 專心致志하고 精思涵泳하여 深解義趣하고 而每句에 必求踐履之方이니 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이면 則書自書我自我니 何益之有리오 先讀小學하여 於事親敬兄 忠君㉡제장용사親友之道에 一一詳玩而力行之할지니라 次讀大學及或問하여 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에 一一眞知而實踐之할지니라 次讀論語하여 於求仁爲己涵養本源之功에 一一靜思而深體之할지니라 次讀孟子하여 於明辨義利遏人慾存天理之說에 一一明察而擴充之할지니라 次讀中庸하여 於性情之德과 推致之功과 位育之妙에 一一玩索而有得焉할지니라 次讀詩經하여 於性情之邪正과 善惡之褒戒에 一一潛繹하여 感發而懲創之할지니라 次讀禮經하여 於天理之節文과 儀則之度數에 一一講究而有立焉할지니라 次讀書經하여 於二帝三王之 治天下之大經大法에 一一領要而溯本焉할지니라 次讀易經하여 於吉凶存亡㉢진퇴소장之機에 一一觀玩而窮研焉할지니라 次讀春秋하여 於聖人之 賞善罰惡㉣抑揚操縱之微辭奧義에 一一精研而契悟焉할지니라 <중략> 凡讀書에 必熟讀一冊하여 盡曉義趣貫通하여 無疑然後에 乃改讀他書요 不可貪多務得하여 ㉤망박섭렵也니라

《㉠격몽요결》

- 주139.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1.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2. ㉣을 국역하시오.
()
- 주143.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4.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壬戌之秋七月既㉠望에 蘇子與客으로 泛舟하여 遊於赤壁之下하니 淸風은 徐來하고 水波는 不興이라 ㉡거주촉객하여 誦明月之詩하고 歌㉢요조之章이러니 少焉에 月出於東山之上하여 ㉣徘徊於斗牛之間이라 白露는 橫江하고 水光은 接天이라 ㉤縱一葦之所如하여 凌萬頃之茫然하니 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하고 飄飄乎如遺世獨立하여 羽化而登仙이라 於是에 飲酒樂甚하여 扣舷而歌之하니 歌曰 桂棹兮 ㉥난장으로 擊空明兮 泝流光이로다 渺渺兮 余懷여 ㉦望美人兮 天一方이로다

《古文眞寶》

- 주145. 문맥상 ㉠과 ㉡의 뜻을 쓰시오.
(㉠: , ㉡:)
- 주146.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8. ㉤을 국역하시오.
()
- 주149. ㉥을 국역하시오.
()
- 주15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5. 3. 13. (목)
결 과 조 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19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③	11	②	16	③	21	①	26	④	31	①	36	③	41	④	46	①
2	②	7	①	12	①	17	④	22	③	27	②	32	④	37	②	42	③	47	②
3	①	8	④	13	③	18	②	23	④	28	①	33	③	38	③	43	②	48	④
4	③	9	③	14	④	19	①	24	②	29	④	34	①	39	④	44	④	49	①
5	④	10	②	15	②	20	③	25	③	30	③	35	④	40	①	45	①	50	③

■ 주관식 I ■

주1	고달플 비	주21	아지랑이 애	주41	시접	주61	逮→諦	주81	瞑眩
주2	칼 검	주22	창자루 필	주42	예일	주62	芳→龙/厖	주82	巨擘
주3	해질 간/한	주23	虫	주43	박담	주63	爛→爨	주83	驟雨
주4	편답지않을 검	주24	糸	주44	자의	주64	帶→黛	주84	拇印
주5	길 연	주25	冂	주45	연우	주65	洩→褻	주85	洋襪/韃
주6	부름뜰 진	주26	豕	주46	맥고	주66	欠逋	주86	意氣銷沈
주7	재 점	주27	憔	주47	삼랄	주67	愧赧	주87	慄毒
주8	다스릴 발	주28	璩	주48	추루	주68	爬行	주88	躁鬱症
주9	노 도	주29	駢	주49	함수	주69	獐惡無道	주89	龍鬚鐵
주10	머리들/달릴 양	주30	撚	주50	경갈	주70	欵格	주90	贅辭
주11	빠를 극	주31	戇	주51	적연	주71	龕室	주91	殄
주12	무소 서	주32	掬	주52	저욕	주72	猯座	주92	舒
주13	월망할 양	주33	夔	주53	재용	주73	彭殤	주93	塘
주14	참 심	주34	滄	주54	분얼	주74	袂別	주94	彝
주15	모두 총	주35	苐	주55	적함	주75	瞥見	주95	縹
주16	왕골 관	주36	鄂	주56	이습	주76	滲透壓	주96	肴/炙/羹
주17	배 소	주37	蔭	주57	昏亂	주77	濕疹	주97	曝
주18	판금/가마솔 병	주38	筮	주58	混亂	주78	愆憑	주98	悸
주19	두를 환	주39	瀝	주59	蒼然	주79	積阻	주99	傾
주20	갈 겁	주40	黔	주60	敞然	주80	搭載	주100	摠

제119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之，於	주135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주102	O	주119	雖，豈	주136	국권을 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한 지식인의 고뇌
주103	O	주120	焉，也	주137	釣鉤
주104	X	주121	生，用	주138	보잘것없는 몸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주105	簞食瓢飲	주122	游，奔	주139	端拱危坐
주106	衆口鑠金	주123	速，見	주140	弟長隆師
주107	蝸角之爭	주124	禦，飢	주141	進退消長
주108	抱頭鼠竄	주125	夫賢士之處世也 譬若錐之處囊中	주142	억누르고 들춰내고 잡고 놓은 미묘한 말과 오묘한 내용
주109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아니함.	주126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주143	忙迫涉獵
주110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여 소문을 널리 퍼뜨림.	주127	心安茅屋穩 性定菜羹香	주144	擊蒙要訣
주111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	주128	靡不有初 鮮克有終	주145	㉔: 보름(날), ㉕: 바라보다
주112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	주129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몸소 실천함이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해서였다.	주146	舉酒屬客
주113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주130	도로써 인주를 돕는 자는 병력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니 그 일이 잘 돌아오기 때문이다.	주147	窈窕
주114	열 번 짚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주131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해지니 중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주148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 서성이 더라/배회하더라.
주115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주132	사신으로 명령을 받들어 금나라에 들어가며	주149	한 앞의 갈대 같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 가는 바를 따라
주116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주133	南宋	주150	蘭漿
주117	以，及	주134	고요하고 쓸쓸하다		